

근현대 동아시아의 지식권력의 형성과 변화 - 번역문화와 번역어를 중심으로

김주아**

I. 서론

인간의 지적 활동은 사유(思惟)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가시적인 행위지만, 언어라는 가시적인 활동을 통해 표현된다.¹⁾ 이처럼 언어는 사고의 매개체이자 문화의 담체이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문화와 함께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며, 이(異)문화의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국어로의 해석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어령 교수는 “번역은 인류 문명사에서 문명과 문명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문화를 창출해 가고 있다.” 라고 정의했다.²⁾

동아시아에서는 ‘한자’라는 문자체계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왔다. 문자의 탄생은 문명의 발전을 가져온다. 한자는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중국의 문자를 통해 그들의 사상과 문화도 함께 전달받았다.³⁾ 하지만, 근대 이후, 한자문화권 국가들은 서양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맞닥뜨리면서 지식의 지각변동을 경험하게 된다. 동아시아는 지난 한 세기 이상 유럽의 문화와 사상을 번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근대적 지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나아가 사회의 질서체계를 형성하고자 했다.⁴⁾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번역된 근대’, ‘전이된 근대’,

**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1) 훔볼트(Humboldt)는 인간의 사고활동이 언어와 함께 수행되기 때문에, 언어의 본질은 인간의 정신활동(思考)과 불가분적이라고 보고 있다. 즉,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언어는 동적인 정신활동이며, 언어를 통해 비로소 정신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배상식, 「J.로크와 W.v.훔볼트의 언어개념 비교연구」, 『哲學研究』, 제119집, 2011, 141쪽.

2) 제9차 <아태통번역포럼>, 이어령 교수의 축사 중.

3) 사고가 ‘얼’이라면 언어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문자는 ‘옷’에 비유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는 다양한 얼과 꼴이 존재하지만, ‘한자’라는 문자(글)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말)를 표현해 왔다. 이처럼 한자라는 공통된 문자를 사용한 지역을 한자문화권이라고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과 일본, 한국, 베트남이 있다. 중국은 한자의 종주국으로서 한자의 생성과 발전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한자를 받아들인 주변국은 한자사용에 있어서 각기 다른 발전과정을 겪었다.

‘이식된 근대’라고 표현한다. 학자들의 평가처럼, 18세기~19세기 동아시아는 서양의 신(新)문명과 마주하면서 그들의 근대화된 문화와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어를 대량생산하였다. Schneider는 중국 근대의 주요 전문용어의 약 90%가 외래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개념사(概念詞)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도입된 어휘들의 어원뿐만 아니라 그 도입된 과정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⁵⁾ 주목할 점은 중국에 도입된 서양의 개념어는 상당 부분 ‘한자어’의 형태로 일본에서 만들거나 사용되던 것이 중국으로 유입되어 정착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자(漢字)’라는 공통의 매개(媒介) 문자가 ‘번역어(翻譯語)’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소위 ‘동아시아의 번역된 근대’가 갖는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개념정리와 문제제기

1) ‘지식권력’의 개념

케임브리지 영어사전에 의하면 지식(Knowledge)은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 얻은 주제에 대한 이해 또는 정보를 가리킨다.⁶⁾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지식(知識)을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고 정의하고 있다.⁷⁾ 우리 말로는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식은 존재 자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와 습득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추상적 가치(명사)이자 행위(동사)이다. 이를 번역한자어에 적용해 보면, 서양이 ‘깨달아(識) 아는 것(知)-개념’을 동아시아가 번역과정을 통해 ‘터득(攄得)해서 알게 됐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깨닫거나 터득하는 과정 없이 얻어진 지식은 반쪽짜리 ‘앎(知)’에 불과하다. 한편, 지식은 본질에서 권력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지식과 권력은 서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심지어 이 둘은 하나가 되어 ‘지식권력’을 형성한다. 이 같은 ‘지식권력’은 생성성과 모호성, 내재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중국 정치사에서 지식은 특수한 작용을 해왔으며, 권력의 근거 또는 권력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⁸⁾ 권력(權力, Power)에 대해 영어사전에는

4) 양일모, 「한국 개념사 연구의 모색과 논점」, 『개념과 소통』, 제8호, 2011, 8-9쪽.

5) 李里峰·陳蘊茜, 「知識與制度脈絡中的東亞概念史研究」, 『史學月刊』, 第9期, 2012, 120쪽.

6)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knowledge>. 2020.01.15 검색

7)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064cfa12821444abaa6b30e6cf4b503>. 상동

8) 王元, 「知識權力的生成路徑、作用机理及位域結構」, 『內蒙古大學學報』, 第47卷 第3期, 2015,

‘사람과 사건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국어사전에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관계학자들은 ‘권력’을 한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타국을 제어하거나 국제적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으로 보고 있다.⁹⁾ 즉, 권력의 작용범위는 좁게는 한 개인에서 넓게는 국제사회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처럼 ‘지식권력’¹⁰⁾은 지식의 ‘선제적 점유’와 권력의 ‘영향력 확대’가능성의 특징이 있으므로, 또 다른 말로 ‘문명’의 하위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근대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번역의 대상을 협의(狹義)로는 ‘지식(문자와 언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광의(廣義)로는 ‘문명(물질과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이다.¹¹⁾

2) 문제의 제기

코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는 근대 번역한자어의 탄생을 ‘문명의 이전(移轉)이자 이식(移植)’이라고 표현했다. 즉, 번역이라는 것이 두 언어의 어휘 사이에 동의어(Synonym)적인 대응 관계가 있음을 전제하거나 그 관계의 존재를 가정하고서야 비로소 가능하다면, 엄밀하게 말해 고위 문명의 수용에 있어서 번역은 존재하지 않는다.¹²⁾ 그 정도로 동아시아 근대의 번역 작업은 창작에 가까운 지적 사투였다. 그런데, 이런 미지의 문명이 ‘한자’라는 문자를 매개체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이 이 개념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한자의 종주국은 중국이지만, 주변국들도 한자라는 글자체계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사상과 문화를 교류해온 전통이 있었다. 하지만, 그 지식전달의 흐름은 대부분 중국에서 주변국들로 전해졌다. 특히, 조선과 일본은 독자적인 문자체계가 있기 전까지 한자를 주된 문자로 사용해 왔다.¹³⁾ 동아시아에서 서양문명을 처음 접한 곳은 당시 동양문화의 대표 격인 중국이었으며, 이러한 동서교류를

63쪽.

9) 蔡亮·宋黎磊, 「孔子學院:全球体系下中國知識權力的外化」, 『國際展望』, 第6期, 2010, 39쪽.

10) ‘지식권력’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인 개념의 용어는 아니지만, 특정한 사유방식이나 학문이론이 한 사회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이러한 영향이 권력의 속성을 띠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식 권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허재영, 「지식 생산과 전파·수용에 따른 지식 권력 연구 방법론」, 『한국민족문화』, 제66호, 2018, 198쪽.

11) 근대 초기 동아시아에서의 번역은 문명의 번역이라고도 불리지만, 기표(記標)와 기의(記義)의 일대일 대응은 불가능하거나, 새로 대응된 개념에는 오히려 생소하거나 기존의 의미망에 의해 기존 개념어의 이해가 방해받을 위험도 있다. 강문희, 「근대 초기 동아시아 언어구법의 경합과 고유성의 발견」, 『어문론총』, 제61호, 2014, 226쪽.

12) 子安宣邦, 「근대 일본의 漢字와 自國語인식」, 『大東文化研究』, 제58집, 2007, 56-57쪽.

13) 한글은 세종대왕 치세인 1446년에 반포되었다. 창제되고 사용된 지 600년이 채 안 된 문자다. 일본의 ‘가나(假名)’는 나라 시대 말기에 헤이안 시대 초기(8~9세기), 일본에 불교가 흥행했던 시대에, 승려들이 불전을 연구할 때 한자의 약호로 사용한 것이 시초이다. 박상익, 『번역청을 설립하라』, 2018, 36쪽.

통해 많은 번역어가 생겨났다. 하지만, 후에 근대화의 과정에서 일본이 먼저 적극적으로 서양의 지식문명을 흡수하면서 다량의 번역어가 생성된다. 이처럼, 일본에서 제작된 번역어는 ‘원재료(한자)’는 중국의 것이지만, 지적가공을 거쳐 ‘완성품(번역 한자어)’으로 중국에 ‘역수출’하게 된다.

본문은 이같이 문명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번역어’의 탄생과정을 통해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전파된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어떻게 이들 국가에서 정착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시 ‘고위 문명’에 해당하는 서양문명이 동양 문명에 전파되면서 생겨난 어휘와 이동 경위를 통해 근대 동아시아의 ‘지식의 흐름과 권력이동’의 속성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동아시아’라는 공간적 기제와 ‘근대’라는 시간적 틀을 중심으로 ‘지식과 번역’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다룬 선행논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주로 동아시아의 번역과 근대화 및 개념사를 주제로 근대 동아시아 지식의 흐름을 다루고 있다. 김인택(2004)은 20세기 초 한국에 수용된 지식을 동아시아 삼국의 지적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당대 지식인의 근대적 지식의 수용양상을 밝히고자 했다. 윤영도(2005)는 서학 번역 시스템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19세기 후반 중국에서의 근대초기 서학 번역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근대 번역’과 근대 담론의 원형 및 ‘근대 언어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김수영(2011)은 중국의 전문지식과 전문가집단의 탄생을 중심으로 중국 근대 지식지형의 형성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양일모(2011)는 한국 개념사 연구에 대해 논하면서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였고, 허재영(2018)은 근대 동아시아의 지식교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근대 지식 유통과정에서 번역이 갖는 의미, 한·중·일의 번역정책, 번역 학술어 생성·변화, 번역 학술어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다. 서광덕(2019)은 근대 지식의 수용과 학문의 수립과정에서 근대 지식으로 대변되는 서구의 학문 곧 서학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어떻게 전래하고 유통되었는지 고찰하였다. 박상익(2018)은 저서를 통해 번역의 주체와 객체 및 관련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본 논문은 중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번역작업과 그 유통과정을 번역어 생성의 주역인 중국과 일본의 논지를 살펴보고자, 중국논문과 일본의 서적과 논문을 참고하였다. ‘번역 한자어’ 생성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한 일본의 경우, 히다 요시후미(飛田良文, 1973)가 밝혔듯이 1960년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 근대언어연구실을 설립하여 정부 주도하에 메이지시기의 언어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했다. 그 밖에도 마루야마 마사오와 가토 슈이치((丸山眞男·加藤周一, 2000)는 번역과 일본의 근대를 주제로 토론한 내용을 문답의 형태로 출판하였다. 일본은 주로 번역어의 생성과정과 종류에 대해 상세하게 규명하고

있다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식 번역어가 중국에 유입하게 된 경위와 그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식 번역어의 양적조사(崔崑, 2007; 张子如, 张艳萍, 2009)는 물론 그 역수입과정(李艳静, 2018)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陈泽佳(2015)는 일본식 번역어 유입에서 선봉자 역할을 했던 양계초(梁啓超)의 업적을 자세히 소개했다. 중국 내의 일본어학계에서는 번역 한자어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韩金玉, 李鑫森, 2018)과 그 의미를 분석하여(朱京伟, 1999) 어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했다. 이외에도 지식과 권력을 주제로 한 논문 및 번역의 역사와 번역가의 지위에 대한 논문도 선행연구로 검토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어학적 또는 사회과학적 차원에서 ‘지식’과 ‘번역어’를 주제로 동아시아의 근대를 고찰한 논문은 많지만, ‘번역 한자어’의 생성과정과 지식전파의 흐름을 중·일 양국의 ‘번역문화’와 ‘번역사의 흐름’의 관점에서 종적으로 비교하여 정리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국과 일본의 번역문화와 번역어의 생성궤도를 쫓아 근대 동아시아의 지식권력의 형성과 변화를 반추해 보고자 한다.

Ⅲ. 중국과 일본의 번역사와 번역문화

동아시아의 한자권 문화는 서양의 선진적 문화를 수입함으로써 그 자체의 근대성을 확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번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문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번역’했고, 그에 힘입어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사회에 도달했다.¹⁴⁾

번역행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해석과 적용과정을 거쳐 출발어(Source Language)를 도착어(Target Language)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해석과 적용과정은 번역의 주체인 번역가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완성도 높은 번역을 위해서는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을 기반으로 이를 적절한 어휘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언어와 언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번역가의 능력은 도착어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좌우한다. 하지만, 이는 앞서 말한 대로 두 언어 사이에 등가(Equivalence) 원칙이 성립했을 경우이다. 문명의 충돌로 인해 권력의 지식변동이 시작된 근대 시기에 번역가의 역할은 단순한 언어의 치환 능력뿐만 아니라, 지식수용의 주체이자 개념어 창출의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시대를 앞서가는 사상가이자 선구자의 능력이 요구되었다.¹⁵⁾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은 번역가를 지식인의 대표적인 주체로 보고, 이들이 구축한 지식체계의 형성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과

14) 박찬길, 「동아시아의 번역과 근대성」, 서평, 2018, 247-249쪽.

15) 중국에 서구지식이 들어온 첫 통로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번역 출판물이었다. 김수영, 「중국 근대 지식지형의 형성과 패러다임」, 『중국사연구』, 제71집, 2011, 217쪽.

일본의 번역문화와 번역사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의 지식수용과정과 흐름

1) 고대 중국의 지식수용과 번역문화

중국의 지식수용과정을 번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불교(佛敎)의 유입, 둘째, 서학(西學)의 수용, 셋째, 서학(西學)의 도입, 넷째, 동학(東學)의 도입이다.¹⁶⁾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근대이전 즉, ‘자국 문명론’이 강한 시기로 수동적인 지식수용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근대 이후,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로 외부의 지식을 받아들인 단계이다.

① 불교(佛敎)의 유입(4~7세기)

중국의 역사는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투쟁 과정이며, 중국인들은 여러 민족을 흡수한 승리의 경험을 통해, 기저에 자국 중심의 문명론이 깔려있었다. 흔히, 세계사적으로 중국을 황하 문명이라 지칭하듯, 중국은 문자와 사상, 제도, 기술 등의 선진 문명을 이룩하면서 문명국으로서의 자부심을 품게 되었고 주변국들을 오랑캐로 취급하였다. 이처럼, 자국 문명론의 의식이 강했던 중국은 적극적으로 주변 문화를 배우고자 애쓰지 않았으며, 주변국들과의 교류도 대부분 주변국에서 중국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교류가 대부분이었다.¹⁷⁾ 이러한 상황에 처음으로 중국에 유입된 외부지식이 바로 불교이다. 불교는 인도를 통해 들어왔으며, 승려들을 중심으로 불교경전이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중국 역사학계와 불교학계에서는 기원전 67년 天竺僧과 攝摩騰이 번역한 《四十二章經》이 중국어 번역의 기원이라고 공인하고 있다.¹⁸⁾

② 서학(西學)의 수용(16~18세기)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천주교를 전파하면서, 또 한 번의 종교에 의한 외부지식의

16) 본 논문에 사용된 ‘유입’, ‘수용’, ‘도입’은 받아들이는 태도의 적극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즉, 피동적인 수용은 ‘유입’이라 칭했으며, 소극적인 받아들임에 대해서는 ‘수용’이라고 하였다. ‘도입’은 전달자보다 수용자 측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경우이다. 중국은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지만, 그들이 전한 과학기술은 받아들였다.

17) 그러나, 중국 내에 다양한 민족이 혼재해 있었기 때문에 예부터 종족 간의 교류를 위해 통역이 필요했다. 중국 통·번역 역사에 대해 문서로 기록된 시기는 주(周)나라로 주례(周禮)와 예기(禮記)에 통역 관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 통역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전문용어로는 ‘象胥(周禮官名. 古代接待四方使者의 官員. 亦用以指翻譯人員)’라는 표현이 있었다. 劉祥清, 「中國翻譯地位的歷史演進」, 『云夢學刊』, 第28卷 第6期, 2007, 52쪽.

18) 앞의 논문, 52쪽.

유입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서양의 선교행위를 억제하자 선교사는 과학기술을 전달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의 환심을 사고자 했다. 따라서 당시의 번역은 대부분 실학 번역(자연과학)이었으며, 이는 중국이 서양의 선진화된 기술 문명을 접할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또 다른 문명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불교 유입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번역의 특징은 외국인이 ‘종교’라는 사상을 중국에 전파하고자 했으며, 번역방법은 주로 외국인이 구술한 내용을 중국인이 필기하여 윤색하는 형식이었다.

한편, 명말청초(明末清初)시기에 서광계(徐光啓)를 대표로 하는 지식인들이 서양의 과학기술 서적을 중국에 소개하면서 과학번역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과학’을 명목으로 ‘선교’를 하고자 했던 선교사들의 속내가 드러나자, 1724년 중국은 천주교 전파금지령을 선포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였다. 이후, 쇄국정책을 펼치면서 번역사업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2) 근대²⁰⁾ 중국의 지식수용과 번역문화

① 서학(西學)의 도입(19세기, 아편전쟁 이후)

1840년 아편전쟁 이후 민족의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반강제적으로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1차 아편전쟁에서 난징조약이라는 굴욕에 이어 2차 아편전쟁까지 겪었던 중국은 1860년대부터 당대 지식인을 중심으로 서학을 도입하였다. 이 당시 지식수용의 가장 큰 변화는 지식 비교모형의 전환이다. 즉, 과거에는 역사적인 종단비교를 중시했다면, 이때부터는 공시적 비교방법으로 전환했다. 또한, 비교기준도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선대 역사의 3대(代)’에서 ‘서방’으로 바뀌게 되었다. 서방과 비교해 자국의 낙후성을 인지한 중국은 지식구조를 전환하고,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봉건주의에서 대외개방으로 선회하였다. 이때부터 서방을 더는 ‘이(夷)’가 아닌 ‘양(攘)’으로 지칭하기 시작했다.²¹⁾

아편전쟁 이후 반식민 봉건사회에 진입한 중국에는 많은 외국인이 내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1840년부터 1919년 5·4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국에서 번역에 종사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이었다. 물론 과학자, 사상가, 문학과와 같은 지식계층의 중국인도 번역 작업에 참여했으며, 번역을 업으로 삼는 사람도 생겨났다.²²⁾

19) 서광계(徐光啓, 1562.4.24. - 1633.11.8)과 Matteo Ricci, (1552.10.6. - 1610.5.11)은 공동으로 『幾何原本』 중에 6권을 번역했다. 두 사람은 『同文算指』을 편역했고 1614년에 발행되었다. Matteo Ricci는 중국에서 중국과 서양을 결합한 번역을 통하여 서방의 과학기술 문헌을 소개했다. 그는 羅明堅과 함께 최초의 동서(東西)문자 사전인 『포화자전(葡華字典)』을 편찬했다.

20) 중국의 근대사는 1840년 제1차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1919년 5·4운동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다. 고대사와 근대사의 구분은 중국이 독립적 봉건사회에서 반식민 봉건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21) 崔波, 「晚清新型知識權力研究」, 『忻州師範學院學報』, 第24卷 第3期, 2008, 80쪽

② 동학(東學)의 도입(1894, 청일전쟁 이후)

청일전쟁 이후, 중국인들은 기술지식이 부족하고 낙후되었음을 통감했으며, 그 비난의 화살을 낚은 지식과 사회정치 제도에 맞추었다. 번역출판업은 지식의 흐름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곳으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번역서의 내용도 구조적인 조정이 가해졌다. 서양의 철학과 사회과학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자연과학과 기술지식은 그다음 순위로 밀려났다.²³⁾ 양무파와 유신파 인사들도 번역을 다시금 중시하기 시작했고, 역관을 설치하여 서양을 배울 것을 주장하였다.²⁴⁾

앞서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서도 서방서적의 번역작업이 시작되었지만, 그 숫자는 일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청일전쟁 이후 중국은 드디어 전면적인 현대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했는데, 청일전쟁 전후(前後)로 일본 유학길에 오른 사람으로는 주은래(周恩來)와 이대소(李大釗), 노신(魯迅)처럼 후에 사회 각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이끈 인물들로 구성됐다. 이들 지식인은 일본에서 배운 신(新)문물을 중국에 소개했다. 아울러, 근대화와 과학발전이 시급했던 중국은 일본식으로 해석된 ‘개념어’를 빠르게 유입하였다. 당시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동학’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일본이 내재화시킨 서방 문명을 중국이 배우고 실천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3) 중국의 지식수용과 주요인물

시대별로 중국의 지식인들은 번역과 저작을 통해 외부에서 배운 지식을 담아내고, 나라의 발전과 민중의 계몽을 위해 애써왔다. 지식과 정보가 시·공간의 제한을 받던 과거에는 이러한 지식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중국은 문명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로 명실상부한 ‘번역 대국’²⁵⁾이다. 그동안 수많은 지식인이 피와 땀을 쏟아 지식을 탐구하고 민족의 발전을 추구해 왔다.²⁶⁾ 하지만, 본문에서는 ‘번역 한자어’의 생성

22) 당시의 번역관들은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도 겸했다. 아편전쟁에 실패한 청(淸)정부는 總理衙門을 설치하여 大臣과 章京이라는 두 가지 관직을 세워, 각각 통·번역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陳璣, 「簡述五四運動前中國翻譯史的歷史脈絡」, 『世紀橋』, 第3期, 2016, 80-81쪽.

23) 양계초는 이에 대해 “정치학을 우선으로 하고, 기술을 그다음으로 하는(以政學爲先, 而次之藝學)” 시기라고 했다. 崔波, 「晚清新型知識權力研究」, 『忻州師範學院學報』, 第24卷 第3期, 2008, 82쪽.

24) 마건충(馬建忠, 1894~1933)은 ‘책을 번역하는 일이 어찌 작금의 급선무가 아닌가? 라고 설파하며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을 주장하였다. 康有爲는 번역 분야에 군사와 공업기술 외에도 정치법률 및 각종 학술서적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劉祥清, 「中國翻譯地位的歷史演進」, 『雲夢學刊』, 第28卷 第6期, 2007, 52쪽.

25) 謝天振, 「記象從翻譯大國到翻譯強國的歷史進程」, 『書評空間』, 2019

26) 2017년 출판된 『中國翻譯家研究』는 총 3권(歷代편, 民國편, 當代편)으로 方夢之(方夢之)교수와 臧其祥(臧其祥)교수가 주 편집자로 참여해 65명의 통번역학자와 함께 5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본

과 전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관찰하도록 하겠다.

① 엄복(嚴復) (1854년 1월 8일 - 1921년 10월 27일)²⁷⁾

엄복은 철학과 사회과학 서적을 번역해 중국에 소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체계적으로 서방의 사상과 문화, 제도를 소개한 첫 번째 지식인으로 근대 중국의 번역 대가이다. 그는 전통적인 봉건 서적은 물론 영문과 수학, 물리, 화학 등의 과목도 익혔으며, 무술변법에서 신해혁명에 이르기까지 13년 동안 번역국의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왕성한 번역 작업도 수행하였다.²⁸⁾ 그는 서방의 개념을 중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중국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민중을 계몽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② 양계초(梁啟超, 1873년 2월 23일 - 1929년 1월 19일)

쇄국정책을 고수하던 청(淸)정부는 갈수록 부패하여 ‘문화수출국’의 지위를 점차 상실하고, 내외외환에 시달리게 된다. 무술변법도 끝내 실패로 막을 내리면서 양계초는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다. 망명 생활 14년 동안 메이지유신 시기 일본의 사회문화와 정치제도를 체험하게 된 그는 일본이 수용한 서양의 문명을 열독(熱讀)하게 되었고, 이후 일본의 신조어와 개념어를 중국으로 도입하였다. 특히, 당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新民總報』 등 간행물을 통해 ‘번역한자어’가 중국으로 빠르게 흡수되었는데, 당대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었던 양계초는 일본식 한자어를 매개어로 서방의 앞선 사상과 이론을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和文漢讀法』을 편찬하고,²⁹⁾ 번역국과 신문사를 창설하여 서방의 사상을 하루빨리 중국에 정착시키고자 했다.

도서는 중국 역사상 지대한 공헌을 한 번역가 약 100명을 선정해 그들의 번역 철학과 작품 및 경험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중국 역사의 ‘터닝포인트’는 모두 번역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번역을 수행한 인물(번역가)에 대한 연구는 근대 이후 중국의 ‘사상과 의식의 변혁’과 ‘문학 유파의 탄생’, ‘과학기술의 혁명’, ‘신생 학문의 태동’과 같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http://circ.kookmin.ac.kr/xe2010/studyact/13192728>에 게재된 필자의 글 인용.

27) 엄복은 중국 복건성 船政學堂과 영국 皇家海軍學院을 졸업했다. 후에 京師大學堂의 譯局總辦을 역임했다. 청(淸)정부 學部名辭館의 총편집을 담당했다. 北洋水師學堂에서 교직에 있을 때 중국 근대 최초의 해군 인재를 육성하였고, 『國聞報』를 창간하여 유신변법의 사상을 설파하였다.

<https://baike.baidu.com/item/%E4%B8%A5%E5%A4%8D/119000?fr=aladdin>

28) 그가 제시한 번역의 표준 ‘신(信), 달(達), 아(雅)’는 후대의 번역실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금과옥조가 되었다. 그의 대표적인 번역 저서로는 『天演論』과 애덤 스미스의 『原富』, Herbert Spencer의 『群學肄言』, Charles de Secondat, Baron de Montesquieu의 <法意>이 있다. 陳璠, 「簡述五四運動前中國翻譯史的歷史脈絡」, 『世紀橋』, 第3期, 2016, 81쪽.

29) 『和文漢讀法』은 양계초가 일본어를 빠르게 배우기 위해 제자 羅普와 함께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중국 지식인들이 한문체로 번역된 일본 서적을 읽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일본에서 만든 명사를 따로 번역하지 않고 일본식 ‘번역한자어’를 대량으로 인용하는 단초가 되었다. 이로 인해 ‘和制漢語’가 중국에 유입되었다. 양계초 자신이 번역 한자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陳澤偉, 「梁啟超對日本“和制漢語”的引介」, 『河北大學學報』, 第40卷 第4期, 2015, 72쪽.

2. 일본의 지식수용과정과 흐름

일본의 지식수용을 번역사(翻譯史)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한학(漢學)의 도입 시기, 둘째는 난학(蘭學)의 수용 시기, 셋째는 서학(西學)의 도입 시기, 넷째는 ‘자국 문명론’ 도입 시기이다.

1) 고대 일본의 지식수용과 번역문화

① 한학(漢學)의 도입 시기

18세기 말까지 일본의 대외관계는 조선통신사나 나가사키(長崎)를 통한 네덜란드가 있던 했어도, 크게 보서는 주로 중국과의 관계였다.³⁰⁾ 고대 일본은 중국의 한자 문화를 일본에 전이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메이지 시대 또다시 한자어를 매개체로 서양문명을 일본에 전이시켰다.³¹⁾ 소라이(荻生徂徠)가 지적했듯이, 일본어 어순으로 고쳐 읽은 한문은 중국어 문헌의 번역이므로, 일본어를 매개로 한 중국어 어휘나 표현법을 받아들여 소화한 도쿠가와 시대의 유학자 문화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는 번역문화였다.³²⁾

② 난학(蘭學)의 수용 시기

에도시대(江戸, 1603~1868), 네덜란드 상선 외에 서구세력의 유입을 금지했던 일본은 난학을 통해 서양의 의학 및 과학기술과 같은 서구의 지식을 받아들였다. 이후, 1854년 흑선사건³³⁾ 당시 일본과 미국의 협상을 중개했던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이었다. 서양 지식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난학은 메이지 시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학이 도입되기까지 일본 번역문화의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이처럼, 메이지 시대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도쿠가와 시대의 지적·사상적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도 바로 ‘번역문화’였다. 즉, 이전의 한문 번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메이지 시대에 서양어 문헌을 대대적으로 번역함으로써 근대 일본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⁴⁾

30) 마루야마 마사오·카토슈이치, 임성모 옮김, 『번역과 일본의 근대』, 2018, 12쪽.

31) 子安宣邦, 「근대 일본의 漢字와 自國語인식」, 『大東文化研究』, 제58집, 2007, 56-57쪽.

32) 마루야마 마사오·카토슈이치, 임성모 옮김, 『번역과 일본의 근대』, 2018, 178쪽.

33) 1853년 7월과 1854년 2월에 매슈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 제독이 이끌던 미국 동인도함대의 함선들이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의 도쿄만(東京灣)으로 진입해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에 통상을 위한 수교를 압박한 사건이다. 미국 함선들의 선체가 검은색이었기에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흑선 내항(黑船來航)’이라고 부르며, 미국에서는 ‘페리 원정(Perry Expedition)’이라고 부른다. 막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1854년 미일화친조약(美日和親條約)을 맺음으로써 제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때부터 200년 이상 이어져 온 쇄국정책이 끝나는 계기가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흑선 사건 (Kurofune Affair).

34) 마루야마 마사오·카토슈이치, 임성모 옮김, 『번역과 일본의 근대』, 2018, 178쪽.

2) 근대 일본의 지식수용과 번역문화

① 서학(西學)의 도입 시기

흔히 일본을 ‘번역왕국’ 이라고 부르며, 일본의 근대를 ‘번역된 근대’ 라고 표현한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근대는 일본이 ‘번역왕국’ 으로 발돋움하게 된 시대적 분기점이다.³⁵⁾ 한편, 번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수용의 구도가 기존에 난학을 통해 수용되던 서구사상에서 흑선사건 이후 영어를 바탕으로 한 서학을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문명개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일본어의 탄생은 번역을 담당했던 식자층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서양문명을 접한 일본 엘리트들은 메이지유신(1868년) 직후, 번역국을 설치하여 국가 주도하에 수만 종에 이르는 서양 학술서를 번역했고,³⁶⁾ 그것은 일본 근대화의 견인차 구실을 하게 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 국민은 전 세계의 고급 지식을 모국어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³⁷⁾ 이처럼, 메이지 시기는 일본의 국가 조직에서부터 일상의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서양화를 추진하던 시기이다. 하지만, 일본의 식자율(識字率)이 평등해지기까지는 메이지 말기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다.³⁸⁾

② 자국 문명론 도입 시기

아편전쟁의 결과는 중국은 물론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던 동아시아 각국에도 큰 충격이었다. 특히,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중국보다 막부(幕府) 말기의 일본이 더 놀라며 이제는 영국에 대해 알고자 했다.³⁹⁾ 결국, 일본은 중화의식에 빠져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한 중국과 달리 열심히 서양문물을 배우고자 노력했으며, 이로부터 54년 뒤인 1894년에는 중국을 침략할 정도로 기술과 제도적인 면에서 크게 앞서갔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35) 메이지유신과 에도시대를 사회적으로 비교하면 4가지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첫째, 수도를 교토(京都)에서 도쿄(東京)로 옮겼다. 둘째,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제가 붕괴하고, 사민평등(四民平等)의 사회로 변모한다. 셋째, 중국문화 중심에서 서양문화 중심으로 지식과 사상의 축이 바뀌었다. 넷째, 교육이 보급되고, 문자사용이 일반화되었다.

36) 군사제도가 부국강병에 관한 책은 물론이고 역사서까지 태정관(太政官), 원로원(元老院), 좌원(左院) 등의 권력체가 주도적으로 번역했다. 태정관의 번역국, 원로원, 대장성, 문부성, 육군성, 사법성과 같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서적을 번역하였다. 앞의 책, 166쪽.

37) 박상익, 『번역청을 설립하라』, 2018, 121쪽.

38) 메이지 6년 창설된 소학교의 입학률은 28.13%였다. 메이지 10년에는 39.88%였고, 메이지 20년(1888)에는 45%에 이른다. 메이지 37년이 되어서야 남녀 모두 90%의 취학률에 달한다. 이때부터 문자사용의 평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明治時代に翻譯された日本語」, 國立國語研究所名譽所員, 明海大學外國語學部客員教授, 飛田良文. 같은 시기, 우리나라는 1888년부터 약 20년 동안 서울에서 활동했던 존스 선교사는 1916년에 <1910-1911년도 조선의 개혁과 발전 보고서(경성:총독부, 1912)>를 참고하여 당시 인구를 대략 1,400만으로 보더라도 문맹률을 90%로 생각하면 전체 인구 중에서 140만 명 정도만 문자를 알고 사용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전무용, 「한글 성서의 보급과 한글 문명의 대전환」, 『기독교사상』, 2월호, 2019, 173쪽

39) 마루야마 마사오·카토슈이치, 임성모 옮김, 『번역과 일본의 근대』, 2018, 14~15쪽.

아시아 유일의 문명국이 되겠다는 제국주의적 의식도 함께 싹트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대 지식인들의 사상적 개입이 작용했다. 예를 들어,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과 자연도태(natural selection)의 해석은 제국주의적인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의 한 흐름을 형성하는데, 이는 엄복(嚴復) 이후 중국의 진화론 수용방식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중국에서는 같은 적자생존이라도 약자 편에 선 입장이 강조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강자·적자(適者)가 되어야만 한다는 제국주의의 입장이 되고 만다.⁴⁰⁾

3) 근대 일본의 지식수용과 주요인물

①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의 현대화를 이끈 교육가로서 그의 사상은 일본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일본 화폐 1만 엔에 새겨지기도 한 그는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이자 계몽가로 알려졌다. 우리에게 ‘탈아입구(脫亞入歐)론’⁴¹⁾을 주장한 인물로 더 유명하다.

당시 일본 지식층에서 유행하던 한학(漢學)과 난학(蘭學)은 물론 영어에도 능통했던 그는 근대 서양의 사회제도와 사상을 일본에 도입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1854년 에도시에 가장 국제화된 도시였던 나가사키에서 난학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1858년에는 에도성(現, 도쿄)에 난학숙을 개원하여 서양의 지식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도입한다.⁴²⁾ 외국어에 능통하고 서양문화에 정통했던 유키치는 1860년 일본의 제1호 증기선인 칸린마루(咸臨丸)를⁴³⁾ 타고 미국 땅을 밟는다. 이후에도 그는 유럽국가를 순방하면서 서방의 사회제도와 사상으로 견문을 넓혀갔으며, 에도정부의 쇄국을 반대하고 적극적인 개화를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저술과 번역 활동은 1868년 메이지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된다.⁴⁴⁾ 당시 일본의 식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의 책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렸

40) 앞의 책, 151쪽.

41) “오늘날의 (국제 관계를) 도모하면서 일본은 이웃 나라의 개명(開明)을 기다려 더불어 아시아를 흥하게 할 여유가 없다. 오히려 그 대오에서 탈피하여 서양의 문명국들과 진퇴를 같이하여 저 지나(支那, 청)와 조선을 대하는 법도 이웃 나라라고 해서 특별히 사이 좋게 대우해 줄 것도 없고, 바로 서양인이 저들을 대하듯이 처분을 하면 될 뿐이다. 나쁜 친구를 사귀는 자는 더불어 오명을 피할 길이 없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시아 동방의 나쁜 친구를 사절해야 한다.”(1885년 3월 16일 『시사신보(時事新報)』 사설에서) [네이버 지식백과] 후쿠자와 유키치와 탈아론(脫亞論) (일본사, 2009.4.20, 박석순, 손승철, 신동규, 서민교, 위키미디어 커먼즈)

42) 蘭學塾: 네덜란드 서적으로 서양 학문을 가르친 학원이다. 후에 영어로 교육하는 영학숙(英學塾)으로 전환하다. 메이지 유신(1868년) 당시 게이오기주쿠로 개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43) 흑선사건 이후 일본인이 증기선을 본 지 7년, 항해기술을 배운지 5년 만에 자신의 군함을 통해 태평양을 건너다는 것은 당시 일본으로서는 천지개벽에 견줄만한 큰 사업이었다.

44) 대표적인 저서로는 『서양사정(西洋事情)』(1866-1870년·전10권)과 『학문의 권함』(1872-1876년·전7권), 『문명론의 개략』(1875년 간행·전6권), 『福翁 자서전』(1899년 간행·전1권) 등이 있다. 미국과 유럽순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서양사정』은 서양의 경제와 학교 교육, 병원 및 사회운영(전기, 가스 등) 시설과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후 발간된 『학문의 권함』은 유

다.⁴⁵⁾ 이처럼 일반인도 손쉽게 번역된 도서를 접하면서, 일본의 서양화(西洋化)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⁴⁶⁾

②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년 6월 23일~1916년 2월 9일)

일본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교육자였던 가토 히로유키는 후쿠자와와 동시대 인물이다. 후쿠자와가 민간의 대표적인 교육자였다면, 가토 히로유키는 정부에서 일본의 교육과 혁신에 일조했던 인물이다. 정치에 입문한 그는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와 문체부, 외교부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메이지 정부의 두뇌 역할을 맡았다. 제도적으로는 입헌정치를 주장하고, 이론적으로는 사회유기체설을 근간으로 국가주의를 옹호하고 대외침략을 주창했다. 미국에서 확산한 사회진화론의 흐름은 개인주의(individualism)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가토 히로유키가 가장 먼저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일본사회에 적용했다.⁴⁷⁾

IV. ‘번역 한자어’의 생성과 전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사상은 중국의 문자였던 ‘한자’를 바탕으로 기록되었다. 근대 이후, ‘지식권력’의 축이 서양으로 이동하면서, 서양의 문화와 문물을 동양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신조어들이 만들어진다. 지식의 이동과 흐름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이러한 신조어들이 동아시아에서는 주로 ‘한자어’로 번역되었으므로, 본문에서는 이를 ‘번역 한자어’로 통칭하고자 한다. 서양의 사상과 개념을 담고 있는 번역 한자어는 중국에서 생성된 것도 있지만, 후에 이들 개념어의 보급과 정착이 일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화제한어(和制漢語), 일제한어(日制漢語), 일제한자(日制漢字)’라고 한다. 원자재인 한자는 중국에서 수입하였고, 단어 생성방식도 중국식 조어

교 사상을 비판하고 실증적인 학문의 중요성을 역설한 책이다. 당대 인기도서로 등극한 이 책은 17편까지 모두 340만 부가 판매되었다. 후쿠자와의 사상체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문명론의 개략』은 인류발전에 있어서 ‘문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양문명의 우수성을 설파하고 일본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 ‘수단으로서의 문명’을 강조하고 있다. 에도시대에 태어나 메이지 유신(1868~1912)의 성공담을 직접 경험한 그는 회고록 『福翁 자서전』을 통해 당대 일본의 발전상과 향후 과제를 기록했다. 이 책에서 그는 낡고 부패한 청(淸) 정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는 없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45) 일본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로 인해 처음으로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의 일본식 번역)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46) 마루야마 마사오·카토슈이치, 임성모 옮김, 『번역과 일본의 근대』, 2018, 170쪽.

47) 앞의 책, 151쪽.

(造語)법의 규칙을 따르고 있지만, 일본의 지식인과 사상가들을 통해서 새롭게 창작되거나 재탄생된 Maid in Japan의 ‘번역 한자어(日制漢語)’가 근대에 집중적으로 양산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그 생성과정과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한다.

1. ‘번역 한자어’의 생성과정

16세기 말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중국에 온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 지식인들과 함께 한역(漢譯)한 서적들이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식 번역어가 일본에 유입되었다. 이후, 일본은 에도시대 난학(蘭學)과 메이지유신 서학(西學)을 통해 서양 지식을 스핀지처럼 흡수하면서 번역된 서적만 해도 수천에 이를 정도였는데, 이때 중국식 번역어도 활용되었다. 당시 일본 사회는 국민계몽과 국가의 부강을 위해, 서양사상을 번역하여 배우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여겼다.

1) 조어법

메이지 시기의 번역은 원어와 일본어가 1:1로 대응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대부분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서양의 개념이었다. 이러한 개념어는 서양 지식과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으며, 당대 지식수용의 주체였던 지식인들은 등가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 개념어를 일본어로 표현하기 위해 ‘번역 한자어’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생겨난 번역어는 대부분 한자어였고, 그 조어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⁴⁸⁾

① 신조어(新造語): 서양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individual-개인(個人), honey-moon-신혼여행(新婚旅行), philosophy-철학(哲學), science-과학(科學), she-그녀(彼女), time-시간(時間), 대근(大根), 출장(出張), 소망(燒亡), 양견(量見), 추상(抽象) 등이 있다.

② 차용어(借用語): 중국에서 활약한 구미 선교사가 중국어로 번역한 한역양서(漢譯洋書)나 영화사전(英華辭典) 또는 중국 고서(古書)에서 차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adventure-모험(冒險), love-연애(戀愛), telegram-전보(電報), 격동(激動), 양행(洋行), 사회(社會), 경제(經濟)와 같은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

번역 한자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차용어는 기존에 번역된 단어를 그대로 빌려온 것도 있지만, 중국 고문을 인용해 창의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도 많이 있다. 몇 가지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문명(文明)은 고한어(古漢語)의 ‘문명’을 인용해 ‘civilization’이나 ‘enlightenment’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⁴⁹⁾ 자유(自由)도 중

48) 「明治時代に翻譯された日本語」, 國立國語研究所名譽所員, 明海大學外國語學部客員教授, 飛田良文. 15쪽.

49) 1875년 일본에서는 福澤諭吉(ふくざわゆきち)의 <문명론의 개략>이 베스트셀러로 유행하고 있었다. ‘문명’이라는 단어는 이때부터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중국에 보급한 사람은 양계초이다. 陳澤佳, 「櫟啓超對日本“和製漢語”的引介」,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0

국의 고한어에서 유래한 한자어로, ‘마음대로 하다, 방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 한자가 최초로 일본에 유입되었을 때도 위와 같은 의미로 전달되었다.⁵⁰⁾ 福澤諭吉이 만들고 보급한 ‘혁명(革命)’이라는 단어는 중국 고한어에 있는 天命과 王朝更迭, 君主鼎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revolve’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회 근간에서부터 발생하는 큰 변혁을 일컫는다.⁵¹⁾ ‘福澤諭吉’은 ‘economy’를 경제(經濟)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중국 고한어의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정치와 경제라는 두 가지 추상적인 개념이 포함된 단어의 어의를 축소한 것이다.⁵²⁾ ‘진화(進化)’는 ‘전진(前進)하다’의 진(進)과 ‘천변만화(千變萬化)’의 화(化)를 조합하여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연상할 수 있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⁵³⁾

③ 전용어(轉用語): 서양의 개념어를 표현하기 위해, 일본어에 있는 유사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가해서 사용했다. 예를 들어, century-세기(世紀), common sense-상식(常識), home-가정(家庭), hygiene-위생(衛生), impression-인상(印象), right-권리(權利) 등이 있다.⁵⁴⁾ 이렇게 생성된 일본식 번역 한자어 가운데 중국으로 유입되어 중국어휘로 고착된 단어는 그 활용범위도 다양하고 사용빈도도 높은 편이다.⁵⁵⁾

2) ‘번역 한자어’의 수량과 분야

현행 연구에 따르면, 일본식 번역 한자어(和制漢語)의 범위와 수량은 파악하기 힘들다. 사토 키요지(佐藤喜代治) 등이 편찬한 『漢字百科大事典』(1996년, 明治書院)의 번역 한자어 일람표(一覽表)에는 일본 나라(奈良) 시대부터 다이쇼(大正)까지 만들어진 ‘번역

卷 第4期, 2015, 73쪽.

50) 초기에는 서양의 ‘자유 사상’이 ‘제멋대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오해되기도 했다. 하지만 후에 福澤諭吉에 의해 ‘自由’가 ‘freedom’의 번역어로 보급되었다. 그는 특별히 해석을 달아 ‘자유’에는 제멋대로 방탕하게 행동한다는 의미가 없음을 표명했다. 앞의 논문, 74쪽.

51) 손중산(孫中山)은 일본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동안 ‘혁명’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공화국을 설립하고자 했던 그는 이 번역어를 활용하였다. 李艷靜, 「和制漢語逆向輸入研究」, 『蘭州教育學院學報』, 第34卷 第6期, 2018, 37쪽.

52) 이 밖에도 福澤諭吉이 창조하여 보급한 단어로는 ‘권리(權利)’와 ‘사회(社會)’, ‘연설(演說)’ 등이 있다. 앞의 논문, 36쪽.

53) ‘진화(進化)’도 기존의 중국어에는 없는 단어로 일본이 서방의 자연과학을 배우면서 한자를 조합하여 만들어낸 번역어이다. 앞의 책, 36쪽.

54) 이 같은 신역어(新譯語) 하나하나의 생성과정은 飛田良文의 『明治生まれの日本語(메이지에 태어난 일본어)』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55) 예를 들어, “인민(人民), 사회(社會), 간부(幹部), 지식(知識), 주의(主義), 정당(政黨), 은행(銀行), 회계(會計), 단위(單位), 과정(課程), 전화(電話), 기능(機能), 귀납(歸納), 과학(科學), 화학(化學), 심리(審理), 진리(眞理), 심리(心理), 문명(文明), 종교(宗教), 도서관(圖書館), 소설(小說), 작품(作品), 주식(主食), 예술(藝術), 공원(公園), 광장(廣場), 기능(機能), 귀납(歸納), 과학(科學), 화학(化學), 심리(審理), 진리(眞理), 심리(心理), 제지(製紙), 제지(制止)” 등이 있다. 崔峯, 「進入中國的和制漢語」, 『日語學習与研究』, 第6期, 2007, 22쪽.

한자어'가 모두 1,164개로 집계된다. 朱京偉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전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에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된 번역한자어가 80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번역한자어의 대량생산은 메이지 시대 이후에 만들어졌다.⁵⁶⁾ 즉, 『漢字百科大辭典一覽表』에서 누락된 번역한자어도 상당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번역 한자어의 총수가 적어도 만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⁵⁷⁾

메이지 정부의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서방문명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표의문자(表意文字)'라는 한자의 특징을 살려 일련의 의역어(意譯語)를 만들어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새로운 개념어가 창출된다.⁵⁸⁾ 특히, 문화적 용어의 기반은 주로 메이지 초기에 형성되었다. 물론 의학, 약학, 물리, 화학, 천문학과 같은 기술적인 분야는 난학을 통해서 일찍이 다양한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었지만, 법률, 정치, 경제, 철학, 교육, 미학과 기타 학술 분야(문물과 제도 등)로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용어가 대량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였다.⁵⁹⁾ 사회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이러한 단어들은 일본 사회의 지적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용되고 활용되면서 정착되었다.

언어사용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성과 소멸의 특징이 있다. 즉, 아무리 훌륭한 개념어와 번역어가 생성된다 해도 사용하는 객체(사회적 동의와 공감, 활용 및 응용)가 없다면, 그 단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번역 한자어'는 중국어에서 차용된 것이 많지만, 보급과 정착 면에서 중국이 일본에 뒤처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본은 단순히 이들 개념어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플랫폼이 있었던 반면에, 제도적 변혁이 없었던 중국에서는 최초의 번역어들이 통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사어(死語)'가 되어버렸다.

56) 번역 한자어를 생성 시기별로 보면 에도(江戸)시기 이전과 메이지(明治)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상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에도 시기에 만들어진 단어는 일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어를 한자로 표현하여 한자어 본연의 의미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메이지 시기에 만들어진 한자어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문헌을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단어로 과학용어나 문어체로 동음이의어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앞의 논문, 22쪽.

57) 하지만, 그 가운데 중국에 유입된 번역 한자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중국에서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취사선택(取捨選擇; 선택과 배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논문, 25쪽.

58) 정치-정부(政府), 관청(官廳), 공무원(公務員), 의회(議會), 행정(行政), 투표(投票).../경제-산업(産業), 사회(社會), 기업(企業), 은행(銀行), 보험(保險), 금융(金融), 전기(電氣).../교통-철도(鐵道), 기차(汽車), 전차(電車), 항공(航空), 전신(電信), 전화(電話).../체육-체조(體操), 수상(水上), 경주(競走), 야구(野球), 탁구(卓球), 심판(審判).../문학예술-비극(悲劇), 배경(背景), 문학(文學), 미술(美術), 연출(演出), 각본(脚本).../사회생활-승객(乘客), 장합(場合), 전차(電車), 집단(集團), 일정(日程), 사회(社會)...앞의 논문, 23쪽.

59) 飛田良文, 『明治生まれの日本語』, 角川ソフィア文庫, 2019, 89쪽.

2. ‘번역 한자어’의 전파와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일본은 ‘문명어(文明語)’로서의 근대한자어를 대량으로 창출하는 것을 통해, ‘외래(外來)’의 낙인이 찍힌 한자를 다시 영유해 나갔고, 한자어의 재영유(再領有)를 통해 문명화를 이룩해갔다.⁶⁰⁾ 이같이 서양 학문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양산된 신조어는 다른 한자문화권에서 서양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창구기능을 하였다.⁶¹⁾

1) 일본식 ‘번역 한자어’의 중국 유입배경

근대 중국의 많은 개념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일부 중국 지식인들에 의해 서방과 일본 사회과학 분야의 저작을 번역하여 차용했다는 것이 중국사 연구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⁶²⁾ 특히, 일본에서 많이 유입되었는데, 그 계기는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淸) 정부가 선진문물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면서 촉발되었다. 1896년에 13명으로 시작한 유학생은 1906년에는 8,000명으로 늘어난다. 이후, 중일전쟁(1937년)에 이르기까지 42년 동안 중국의 일본행 유학은 계속되었고, 이들 유학생을 중심으로 일본식 번역어가 중국에 역수입된다. 이때, 중국에 도입된 일본식 번역어는 당대 중국 지식인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유입된 신조어는 근대 중국 민중의 사상을 계몽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사회의 변혁과 발전을 가져왔다.⁶³⁾ 특히, 신해혁명 전후로 중국에서도 사회변혁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정치·사회적인 개념어들이 대량으로 유입된다. 당시의 ‘서학(西學)’은 대부분 일본에서 소개된 것을 중국에 그대로 가져오는 식이었다.⁶⁴⁾

이처럼, 번역 한자어가 가장 왕성하게 중국에 유입된 시기는 20세기 초이다. 당시 경제와 군사, 정치제도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이 중국보다 강성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용어가 생성되고 확립된 것도 일본이 훨씬 빨랐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자의 탄생 이래, 한자어는 중국에서 일본으로(단방향) 전해지는 것이 주된 추세였다면, 근대 이후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쌍방향으로 변화되기 시작해, 오히려 일본에서 중국으로 역수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60) 子安宣邦, 「근대 일본의 漢字와 自國語인식」, 『大東文化研究』, 제58집, 2007, 57쪽.

61) 陳澤佳, 「梁啓超對日本”和制漢語”의 引介」, 『河北大學學報』, 第40卷 第4期, 2015, 71쪽.

62) 李里峰·陳蘊茜, 「知識与制度脉絡中的東亞概念史研究」, 『史學月刊』, 第9期, 2012, 201쪽.

63) 양계초는 <時務報>의 주필을 담당하면서 일본과 관계를 맺게 된다. 당시 그가 <時務報>에 쓴 문장은 모두 67편이며 이 가운데 28편이 일본과 관련된 문장이다. 그는 일본어와 중국어는 동문동종(同文同種)으로 영민한 사람들은 몇 개월이면 그 문자를 익힐 수 있으니, 가능한 그들의 책을 많이 번역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어를 매개로 서양의 선진사상과 이론을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양계초는 이미 사상 해방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陳澤佳, 「梁啓超對日本”和制漢語”의 引介」, 2015, 71-72쪽.

64) 예를 들어, 민주(民主), 과학(科學), 주동(主動), 연필(鉛筆), 물리(物理), 미학(美學), 모순(矛盾), 지식분자(知識分子)와 같은 단어는 일본이 서양문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의역한 어휘지만, 중국에는 사회개혁 시기에 전파되었다.

2) 일본식 ‘번역 한자어’의 중국 유입과정

물론 중국도 처음부터 무조건 일본식 한자어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일본식 ‘번역 한자어’로부터의 오염을 막고, 자국어의 순수성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 고어(古語)를 이용하거나 신조어를 개발해 서방개념을 중국어로 번역하고자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만다.⁶⁵⁾ 예를 들어, 엄복은 ‘evolution’을 ‘천연(天演)’으로 번역했지만, 그 의미가 너무 심오해 오히려 쉽게 보급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일본식 번역한자어인 ‘진화(進化)’로 대체되었다. 청대(清代)에는 한때 ‘democracy’, ‘science’를 발음 그대로 ‘더모크라시(德莫克拉西)’, ‘싸이인쓰(塞因斯)’로 음역했고, 이는 중국의 지식인들에 의해 간단하게 ‘Mr, 더’와 ‘Mr, 싸이’와 같은 축약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직역도 의미전달력이 떨어져 결국에는 의역으로 번역된 일본의 ‘민주(民主)’와 ‘과학(科學)’으로 대체되었다.⁶⁶⁾ 이처럼, 번역어의 수용에 있어서 과도기 상태에 있던 중국은 일본식 번역어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양계초와 같은 지식인을 통해 선별의 과정을 거쳐 중국으로 도입되었다.⁶⁷⁾ 양계초는 ‘번역한자어’를 인용할 때 주석을 통해 해석을 덧붙여 중국식 번역어와 일본식 번역어를 대조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⁶⁸⁾ 이렇게 근대 일본을 통해 중국에 유입된 번역어는 1903년 『新爾雅』라는 사전으로 출간되었다.⁶⁹⁾

2) 일본식 ‘번역 한자어’가 중국에 미친 영향

1978년 출판된 『現代漢語詞典』에 수록된 외래어 가운데 일본식 번역 한자어는 768개, 구미 각국의 음역단어는 721개이다. 『漢語外來語詞典』에 수록된 번역 한자어는 모두 889개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⁷⁰⁾ 분야별로는 과학기술(158), 사회생활(125),

65) 李里峰·陳蘊茜, 「知識与制度脉絡中的東亞概念史研究」, 『史學月刊』, 第9期, 2012, 201쪽.

66) 李艷靜, 「和制漢語逆向輸入研究」, 『蘭州教育學院學報』, 第34卷 第6期, 2018, 37쪽.

67) 양계초가 『시무보(時務報)』의 주필로 있을 때, 처음 공개적으로 일본서적을 번역할 것을 주장하였다. 1987년 그는 강유위(康有爲)와 함께 大同驛書局을 창립하여 일본 서적을 대대적으로 번역하기 시작한다. 1902년에서 1904년에 번역한 일본 문헌이 321종에 달하며, 이는 전체 번역 서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같은 시기 서양문헌의 번역은 120종으로 전체 번역서적의 30%를 못 미친다. 이후 일본서적의 번역은 해마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번역 한자어가 중국에 전파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68) 예를 들어,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30년 동안 세계의 지식을 배우고자 했으며, 그들이 만든 실용서가 수천 가지에 달한다. 특히, 서양의 정치학과 資生學(즉, 이재학(理財學), 일본에서는 경제학(經濟學)이라고 한다), 智學(일본에서는 철학(哲學)이라고 한다), 群學(일본에서는 사회학(社會學)이라고 한다.) 등이 있다. Logic은 명(明)나라 때 李之藻가 名理라고 번역했고, 근대 엄복은 名學이라고 번역했다. 오늘날 동쪽(일본)에서 통용되는 번역어는 倫理學이다.” 陳澤佳, 「梁啟超對日本“和制漢語”的引介」, 2015, 71쪽.

69) 본 사전은 清末民初, 일본에서 채류하던 중국 유학생이 편찬했다. 주로 서양의 인문, 자연과학의 신개념, 전문학술용어 등을 수록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일본식 번역한자어다.

사상철학(121), 정치(104)가 약 63%로 가장 많았다.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종교용어(8)로 모두 기독교와 관련된 어휘이다.⁷¹⁾ 長子如(2009)에 따르면 메이지유신 이전의 번역어는 장합(場合), 무대(舞臺), 불경기(不景氣) 등 모두 102개다. 메이지유신 전후의 번역어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용어가 대부분이고, 미술(美術), 물질(物質), 구락부(俱樂部) 등 모두 299개다. 중국 고서에서 언급된 적이 있지만, 일본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단어는 모두 68개로 문학(文學), 경제(經濟), 노동(勞動) 등이 있다.⁷²⁾ 중국에 유입된 번역어는 초기에는 신조어로 유입되었지만, 일정 기간의 적응을 거쳐 대부분 중국어의 기본어휘로 자리를 잡았다. 崔崙의 통계에 의하면 844개의 단어 가운데 모두 95%가 중국어로 고정되었다. 일부(45개 단어, 총수의 5%)만 사어(死語)가 되었다.⁷³⁾

번역어가 현대중국어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양적 변화만이 아니다. 번역 한자어는 중국어에 두 음절 단어의 증가를 가져왔다. 고대 중국어는 주로 단음절 어휘였지만, 번역 한자어가 전파되면서 ‘이론(理論)’, ‘자유(自由)’와 같은 이음절 단어가 대량으로 유입되었다.⁷⁴⁾ 이 밖에도 ‘지주단계(地主段階)’, ‘심리작용(心理作用)’과 같은 사음절 어휘도 중국의 언어시스템에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어휘들은 중국어가 더욱더 세밀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편이 되었다. 또한, 중국어의 표현 습관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중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건강(健康)’과 ‘계승(繼承)’과 같은 단어가 대표적인 예이다. 명·청대 건강에 대한 중국식 표현은 ‘강건(康健)’이었으나 일본식 한자어가 유입되면서 순서가 바뀌었다.⁷⁵⁾ 이 밖에도, 중국어에서 어미로 많이 쓰이는 “~적(的)”, “~화(化)”, “~성(性)”, “~식(式)”, “~력(力)”, “~제(制)”, “~법(法)”, “~주의(主義)”와 같은 명사화 표지도 일본에서 유래한 것이다.

근대 번역은 지식의 수용이자 문명의 도입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을 막론하고 당대 ‘시대적 사명’인 번역을 감당했던 지식인들은 동시대에 두 가지 문

70) 長子如의 연구에 의하면, 『한어외래어사전』(1984년)에 수록된 일본에서 유래한 중국어 어휘는 모두 892개로 집계된다. 중국 사회과학원 李京中 원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현대 중국 사회과학의 고급어휘의 60~70%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다. 일본이 창의적으로 한자를 변화함으로써 또 다른 한자왕국을 이룩하였다. 일본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유일하게 중국에 새로운 한자어를 보내서 보답한 국가이다.”

71) 崔崙, 「進入中國的和制漢語」, 『日語學習与研究』, 第6期, 2007, 23-24쪽.

72) 李艷靜, 「和制漢語逆向輸入研究」, 『蘭州教育學院學報』, 第34卷 第6期, 2018, 37쪽.

73) 崔崙, 「進入中國的和制漢語」, 『日語學習与研究』, 第6期, 2007, 25쪽.

74) 이음절 어휘의 증가는 서양의 개념을 번역하면서 증가하였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과 서양의 지식인이 합작해서 만든 서적과 사전에서도 두 음절 이상의 신조어가 많이 생겨났으며, 이는 다시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번역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에서 정착된 이 단어들은 다시 중국에 보급되었다.

75) 韓金玉·李鑫森, 「浅析和制漢語對漢語新詞的影響及對策」, 『産業与科技論壇』, 第17卷 第21期, 2018, 177쪽.

명을 살았다. 이에 대해,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의 개론』에서 ‘한 몸으로 두 번 사는’ 체험을 했다고 표현했다. 즉, 메이지유신의 사회변혁 시기 서양문명을 수용하고 있는 자신의 전신(前身)은 동양 또는 일본의 전통문화에 속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는 이런 체험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았다. 번역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적 자립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번역은 외국의 개념과 사상의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항상 자국의 전통에 의한 외래문화의 변용이기 때문이다.⁷⁶⁾

V. 결론

한자가 쓰인 이래로 약 3천 년 동안 문화와 지식의 흐름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중국에서 주변국으로 전파되는 것이 순리였다면, 근대 이후 일본은 이러한 흐름을 바꾸고자 했으며, 그러한 변화의 흔적은 번역한자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문에서는 서양에서 창출된 지식개념(종교, 사상, 문화, 기술 등 문명사회의 기반)이 동아시아에 유입되면서 발생한 어휘들을 통해 지식권력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중국과 일본 모두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이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다만, 일본을 일깨운 것은 아편전쟁이었고, 중국을 일깨운 것은 청일전쟁이었다. 일본은 아편전쟁(1840)에서 지는 해와 뜨는 해를 명확히 판단했다면, 중국은 청일전쟁(1894)에서 제자격인 일본에 수치를 당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이후 서방의 기술은 물론 제도와 사상도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자국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중국은 한 번도 전면적인 서화(西化)를 고려한 적이 없었다. 단지 서양의 선진적인 기술과 제도를 활용해 국가발전에 활용하고자 했을 뿐이다. 반면,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던 일본은 또 다른 태양을 발견하자마자 서양의 기술은 물론 그 기반이 되는 제도와 사상도 전면 도입해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했다.

근대 동아시아의 지식수용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인도에서 출발한 종교문화는 수용했지만, 서양의 종교문화는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불교가 ‘전도(傳導)’를 목적으로 했다면, 기독교는 ‘선교(宣敎)’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즉, 불교는 도리와 이치를 설파했지만, 기독교는 종교(宗教)를 이식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위정자에게 불교는 활용가치가 있다고 여겨졌지만, 기독교는 권력구조를 무너뜨리는 위협요소로 판단되었다. 지식수용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도입에서는 중국이 일본을 앞섰지만, 제도와 사상 수용에서는 일본이 시기적으로 앞섰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수용은 번역 한자

76) 마루야마 마사오·카토슈이치, 임성모 옮김, 『번역과 일본의 근대』, 2018, 179쪽.

어의 생성과 전파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문명의 정수가 ‘지식’ 이라면 일본은 서방 ‘지식의 권력’에 올라타 기호지세(騎虎之勢)로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근대 이후 동아시아 지식의 흐름은 순리를 역행하여 일본에서 중국으로 흐르게 된다. 이처럼, 지식권력의 구도를 바꾼 ‘번역사건’은 오늘날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다.

근대 동아시아의 번역문화와 역사를 통해 우리는 언어와 문자가 특정 국가나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치가 매겨지는 공동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언어문화의 형태로 전파되는 지적가치의 흐름은 오직 순환이 있을 뿐이며, 지식담체로서의 언어문명은 인문교류의 일종인 ‘번역활동’ 과정에서 ‘권력의 이동’을 수반한다.

【參考文獻】

- 김용규·이상현·서민정, 『번역과 횡단-한국 번역문학의 형성과 주체』, 서울:현암사, 2017.
- 김인택, 『근대초기 ‘植民’ · ‘帝國主義’ 관련 번역서 研究-그 형성·전파의 동아시아 연계문제와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04.
- 마루야마 마사오·카토슈이치, 임성모 옮김,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이산, 2018 .
- 박상익, 『번역청을 설립하라』, 파주: 유유, 2018.
- 사카이 나오키 지음, 후지이 다케시 옮김, 『번역과 주체- ‘일본’ 과 문화적 국민주의』, 서울: 이산, 2005.
- 윤영도, 『中國 近代 初期 西學 翻譯 研究-『萬國公法』 翻譯 事例를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 강문희, 「근대 초기 동아시아 언어규범의 경합과 고유성의 발견-고토큐 스스이(幸徳秋水)의 『공산당선언』 번역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61호, 2014.
- 김수영, 「중국 근대 지식지형의 형성과 패러다임」, 『中國史研究』, 제71집, 2011.
- 박찬길, 「동아시아의 번역과 근대성: 김용규·이상현·서민정 엮음 『번역과 횡단』에 대한 서평」. 『안과 밖』, 45권, 2018.
- 배상식, 「J.로크와 W.v.호볼트의 언어개념 비교연구」, 『哲學研究』, 제119집, 2011.
- 서광덕,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서학(西學)의 수용과 한국 근대지(近代知)의 형성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3호, 2019.
- 양일모, 「한국 개념사 연구의 모색과 논점」, 『개념과 소통』, 제8호, 2011.
- 전무용, 「한글 성서의 보급과 한글 문명의 대전환」, 『기독교사상』, 2월호, 2019.
- 허재영, 「지식 생산과 전파·수용에 따른 지식 권력 연구 방법론」, 『한국민족문화』, 제66호, 2018.
- 허재영, 「지식 유통의 관점에서 본 근대 동아시아의 번역 학술어 생성·변화 및 그 영향」, 『독서연구』, 제49호, 2018.

子安宣邦, 「근대 일본의 漢字와 自國語인식」, 『大東文化研究』, 제58집, 2007.

潘國威, 『新爾雅』,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1.

陳璐, 「簡述五四運動前中國翻譯史的歷史脈絡」, 『世紀橋』, 第3期, 2016.

蔡亮·宋黎磊, 「孔子學院: 全球體系下中國知識權力的外化」, 『國際展望』, 第6期, 2010.

陳澤佳, 「樸啓超對日本"和製漢語"的引介」,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0卷 第4期, 2015.

崔波, 「晚清新型知識權力研究」, 『忻州師範學院學報』, 第24卷 第3期, 2008.

崔崑, 「進入中國的和製漢語」, 『日語學習與研究』, 第6期, 2007.

韓金玉·李鑫森, 「淺析和製漢語對漢語新詞的影響及對策」, 『產業與科技論壇』, 第17卷 第21期, 2018.

李里峰·陳蘊茜, 「知識與製度脈絡中的東亞概念史研究-"東亞近代知識與製度的形成"國際學術研討會綜述」, 『史學月刊』, 第9期, 2012.

李艷靜, 「和製漢語逆嚮輸入研究」, 『蘭州教育學院學報』, 第34卷 第6期, 2018.

劉祥清, 「中國翻譯地位的歷史續進」, 『雲夢學刊』, 第28卷 第6期, 2007.

王元, 「知識權力的生成路徑、作用機理及位域結構」,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7卷 第3期, 2015.

謝天振, 「記錄從翻譯大國到翻譯強國的歷史進程-評『改革開放以來中國翻譯研究概論(1978-2018)』」, 『書評空間』, 2019.

張子如·張艷萍, 「現代漢語中和製漢語詞的量化觀察」, 『西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5期, 2009.

硃京偉, 「『和製漢語』的結構分析和語義分析」, 『日語學習與研究』, 第4期, 1999.

洵山 眞男, 加藤 週一, 『翻訳と日本の近代』, 東京: 岳波新書, 2018.

飛田 良文, 『明治生まれの日本語』, 角川ソフィア文庫, 2019.

飛田 良文, 「明治時代の言語」, 國立國語研究所, 1973(昭和48年).